

직업교육

I. 직업교육 정책

□ 교육부, 기업·대학·정부 연간 221만 명에게 자유학기제 체험활동 지원(2015.6.26.)

- ‘제2차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협의회’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관, 대학·전문대학의 2015년 자유학기제 학생 체험활동 지원 분석결과 및 체험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
- 교육부는 자유학기제 학생 체험활동 지원 활성화를 위해 44개 중앙부처·청·위원회 및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협조로 민·관의 자유학기제 학생 체험활동 지원 현황을 전수 조사
 - 공공기관은 44개 중앙부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1,039개 소속·산하 기관에서 연간 46,156개 프로그램을 1,785,123명에게 제공할 계획
 - 민간기관은 51개 전경련 소속 회원기업에서 약 11만 명, 대학·전문대학은 109개 기관에서 319,591명에게 체험활동을 지원할 예정

□ 교육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 시안 발표(2015.6.26.)

- 교육부는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활성화를 위한 종합방안으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 시안 발표
- 이번 시안에는 1)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기반 조성, 2)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모델 확산, 3) 대학의 취업강화 지원, 4) 대학 기본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효율화 등 4대 과제별 세부 과제를 담았으며, 현장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7월 중 방안을 확정할 예정

□ **교육부 · 한국연구재단,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 연차평가 및 신규 선정결과 발표**
(2015.6.05.)

- ‘특성화전문대학(SCK) 육성사업’은 지난 ‘13년부터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의 중심기관으로 집중·육성”하여 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현 정부 국정과제로 중점 추진
 - SCK사업의 핵심은 전문대학의 기존 교육과정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현장·일자리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개편
- ‘14년 선정된 78개교를 대상으로 수행된 SCK사업 연차평가는 SCK사업의 조기정착 및 성과창출을 위해 정부정책과 대학의 특성화 추진실적·방향의 정합성을 위주로 한 컨설팅 중심으로 실시
 - 단일산업분야 특성화(Ⅰ 유형), 복합산업분야 특성화(Ⅱ 유형), 프로그램 특성화(Ⅲ 유형), 평생직업교육대학 특성화(Ⅳ 유형)로 구분하여 진행된 평가 결과 총 19개 대학이 ‘매우우수’ 평가
 - 1차 연도 사업 주요 평가 중 특성화 참여분야 ‘취업률’은 사업개시 전 52.7%에서 67.0%로 14.3%p, 충원율은 98.9%에서 99.3%로 0.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교육부는 연차평가 결과 각 대학별 우수사례들을 사례집으로 발간하여 확산·보급할 예정

□ **교육부, 기초 지자체도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에 적극 지원**(2015.6.04.)

- 교육부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중학교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활동 지원을 위하여 긴밀히 협력하기로 함
-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는 지역사회 체험처 확보 및 학습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자체-교육(지원)청-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실질적 협력 관계 구축 중
 - ※ 55개 기초 지자체가 시·군·구 단위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에 행·재정적 지원(‘15.3.31. 기준)
- 이번 업무협약으로 시·군·구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사회 체험처 발굴 등 중학교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활동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적극 협력하게 되었으며, 교육협력

이 226개 모든 시·군·구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교육부·고용노동부,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Uni-Tech) 기본계획 및 사업 공고 발표(2015.6.04.)**

-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보장되고, 대학입시와 학비 부담 없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필요한 직무능력을 키우는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Uni-Tech), 이하 Uni-Tech’ 시범 사업단을 공동으로 공모
- Uni-Tech는 고등학교 3년 과정과 전문대학 2년 과정의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5년간 집중적인 직업교육 실시
 - 취업이 보장된 기업에서 교육과정 개발에 직접 참여하고, 학생은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수업을 듣고, 졸업 후 바로 현장에 투입 가능한 중·고급 숙련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가 만들어졌다는 데 의미
-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사업 공고, 사업설명회를 거쳐 7월 말까지 최종 16개 시범 사업단을 선정할 계획
 - 사업단은 전문대학이 주관으로 특성화고,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선정된 사업단은 일학습병행제의 듀얼공동훈련센터로 지정하여 올해 시설 및 기자재비로 최대 10억 원, 운영비로 최대 10억 원 지원 예정

□ **교육부·한국연구재단·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연차평가 및 신규 선정 결과 발표(2015.5.21.)**

- 2단계(’14~’16)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참여 대학으로 진입한 총 85개교(대학 55교, 전문대 30교)의 전년도 사업성과 및 금년도 사업 계획에 대한 연차평가 결과, 총 22개교(대학 13교, 전문대 9교)가 “매우우수” 등급으로 평가
 - ’15년 호남제주권 및 대경강원권 추가 선정에 따라 신규참여를 신청한 8개 대학에 대한 평가 결과, 호남제주권, 대경강원권 각 1개 대학 신규로 선정
- 교육부는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을 통해 산학협력 성과 창출과 확산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지속 유도 추진

- 금년도에는 (가칭)Post-LINC사업 기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 LINC사업('12~'16)을 통해 구축된 기반과 성과를 바탕으로 기술혁신, 비이공계 분야 산학협력 확대, 글로벌 산학협력 등 고도화되고 다양한 산학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갈 계획

II. 직업교육 통계

◆ 2015년 6월 대학정보 공시

- '14년 4년제 일반대학의 기술이전 실적은 3,006건으로 '13년 2,299건 대비 30.8%(707건) 증가하였으며, 기술이전 수입료는 521억 원으로 '13년 428억 원 대비 21.7%(93억 원) 증가

표 1. 2014년도 기술이전 건수 및 수입료 현황

(단위: 건, 억 원, %)

구분	기술이전						
	건수			수입료			
	2014년	2013년	증감률	2014년	2013년	증감률	
전체(176개교)	3,006	2,299	30.8	521.0	428.4	21.6	
설립	국·공립(26교)	1,142	893	27.9	177.1	133.8	32.4
	사립(150개교)	1,864	1,406	32.6	343.9	294.6	16.7
소재지	수도권(66개교)	1,190	947	25.7	306.4	255.0	20.2
	비수도권(110개교)	1,816	1,352	34.3	214.6	173.4	23.8

자료기준일 : '14.1. ~ '14.12.

- '14년 4년제 일반대학의 현장실습 이수학생은 58,597명으로 '13년 53,896명 대비 8.7%(4,701명) 증가하였고, 현장실습 참여기업체 수도 36,636개로 '13년 32,221개 대비 13.7%(4,415개) 증가

표 2. 2014년도 현장실습 운영현황

(단위: 명, 개, %)

구분	현장실습 이수 학생 현황			현장실습 참여기업체 수			
	2014년	2013년	증감률	2014년	2013년	증감률	
전체(176개교)	58,597	53,896	8.7	36,636	32,221	13.7	
설립	국·공립(26교)	15,373	14,938	2.9	9,121	8,246	10.6
	사립(150개교)	43,224	38,958	11.0	27,515	23,975	14.8
소재지	수도권(66개교)	16,709	15,748	6.1	11,464	10,298	11.3
	비수도권(110개교)	41,888	38,148	9.8	25,172	21,923	14.8

자료기준일 : '14.3. ~ '15.2.

□ '15학년도 대학의 기회균형선발자는 26,632명(8.1%)으로 '14년(22,949명, 6.8%) 대비 1.3%p(3,683명) 증가

- 기회균형선발 :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에 해당하는 입학전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특성화고 졸업자, 특성화고졸 재직자, 농어촌지역,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서해5도 학생 등이 해당

표 3. 2015년 기회균형선발 결과

(단위: 명, %, %p)

구분	총입학자	2015년									
		기회균형선발									
		정원외					정원내 ²⁾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성화고 졸업자	특성화고졸 재직자	농어촌지역학생	기타 ¹⁾	소계	고른기회대상	대학독자기준	소계	기회균형선발합계	
전체 (176개교)	328,706	3,800	2,885	1,323	9,009	884	17,901	7,819	912	8,731	26,632
		1.2	0.9	0.4	2.7	0.3	5.5	2.4	0.2	2.6	8.1
국·공립 (26개교)	69,986	951	445	248	1,789	173	3,606	2,242	213	2,455	6,061
		1.4	0.6	0.4	2.6	0.2	5.2	3.2	0.3	3.5	8.7
사립 (150개교)	258,720	2,849	2,440	1,075	7,220	711	14,295	5,577	699	6,276	20,571
		1.1	0.9	0.4	2.8	0.3	5.5	2.2	0.3	2.5	8.0
수도권 (66개교)	122,424	1,376	1,132	937	3,352	457	7,254	1,693	389	2,082	9,336
		1.1	0.9	0.8	2.7	0.4	5.9	1.4	0.3	1.7	7.6
비수도권 (110개교)	206,282	2,424	1,753	386	5,657	427	10,647	6,126	523	6,649	17,296
		1.2	0.9	0.2	2.7	0.2	5.2	3.0	0.2	3.2	8.4

<표 계속>

(단위: 명, %, %p)

구분	2014년									기회균형 선발비율 ³⁾ 증감
	총입학자	기회균형선발								
		정원의외						정원내 대학 독자 기준	기회균형 선발합계	
		기초생활 수급자 등	특성화고 졸업자	특성화 고졸재직자	농어촌 지역 학생	기타 ¹⁾	소계			
전체 (176개교)	337,024	4,259	5,106	1,000	10,141	757	21,263	1,686	22,949	1.3
		1.3	1.5	0.3	3.0	0.2	6.3	0.5	6.8	
국·공립 (26개교)	70,632	997	814	262	1,960	163	4,196	456	4,652	2.1
		1.4	1.2	0.4	2.8	0.1	5.9	0.7	6.6	
사립 (150개교)	266,392	3,262	4,292	738	8,181	594	17,067	1,230	18,297	1.1
		1.2	1.6	0.3	3.1	0.2	6.4	0.5	6.9	
수도권 (66개교)	123,495	1,653	1,877	607	3,793	392	8,322	779	9,101	0.2
		1.3	1.5	0.5	3.1	0.3	6.7	0.7	7.4	
비수도권 (110개교)	213,629	2,606	3,229	393	6,348	365	12,941	907	13,848	1.9
		1.2	1.5	0.2	3.0	0.2	6.1	0.4	6.5	

자료기준일: 2015년 3월 신입생

- 주: 1) 기타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서해5도 학생 등
- 2) 정원내 = 고른기회대상자, 대학자체기준에 따른 전형
- 3) 기회균형선발비율 = (기회균형선발합계 ÷ 총입학자 수) × 100

(작성: 정 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